



지난 19일 광주 서석초등학교 야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허버베이스볼과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의 지왕리그 준결승전에서 허버베이스볼의 유재두가 4회말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괴물’ 류현진 메이저리그 성공데뷔 시즌 종료 “후회없다...WS 내년 다시 도전”

다저스 NLCS 2승 4패... 월드시리즈 세인트루이스-보스턴 대결

“아쉽죠. 그래도 올해 후회 없어요.” 지난 19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 원정팀 라커룸에 조용히 앉아 있던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다.

이날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0-9로 대패,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전적 2승4패로 월드시리즈 진출이 좌절되면서 류현진도 시즌을 마감했다. 류현진은 이날 다저스가 이기면 월드시리즈 진출을 가름할 7차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

류현진은 “경기를 지면 다 서운하기 마련”이라고 7차전이 무산된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내일 나왔으면 정말 부담은 컸을 것”이라고 큰 짐을 내려놓은 안도감도 숨기지 않았다.

정규 시즌에 14승8패와 방어율 3.00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올렸고 세인트루이스와 리그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 한국 선수 최초의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승리투수가 되는 등 눈부신 1년을 보낸 그는 ‘후회없는 시즌’이라고 다저스에서 보낸 첫 해를 정의했다.

류현진은 “처음 다저스와 계약하고, 또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할 때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고 얻은 게 많았다”면서 “14승이나 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아주 만족스럽다. 한 시즌을 특별히 아픈 데 없이 끝까지 완주한 것도 아주 좋았다”라면서 만족감을 보였다.

“한 시즌을 뛰어보니 체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류현진은 “동부 원정 때 시차 적응에 좀 애를 먹었는데 내년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내년을 대비해 특별히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거의 없다. 새로운 구종 개발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가장 잘했던 경기로는 5월 에인절스를 상대로 거둔 완봉승과 포스트시즌 승리 투수가 된 세인트루이스와 리그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을 꼽았다.

“신인으로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첫 해에 할만한 건 다 했다”는 류현진은 “월드시리즈 진출은 운이 안 된 것이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6차전에서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가 4이닝 7실점으로 허망하게 무너진 데 대해 “커쇼도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가을 야구를 해본 팀이 다르긴 다르더라”고 6차전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월드시리즈는 세인트루이스와 보스턴의 대결로 압축됐다. /연필뉴스

사회인 가을야구 ‘무등기’ 누가 품을까

■ 광주일보 주최 제 3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 야구대회

팀마다 우승 자신... 리그 결승진출 8개팀 확정

무등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할 최후의 8개 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지왕·인왕리그 준결승전이 지난 19일 서석초등학교 야구장에서 진행됐다.

NH 디스커스와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이 지왕리그 결승티켓을 따냈고, 인왕리그에서는 페가수스와 대한철강이 결승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번 준결승에 따라 천왕리그(팔도참오리-자연환경) 호남리그(화순에스레틱스-버팔로스) 등 4개 리그 결승진출 8개팀이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NH 디스커스는 준결승에서 만난 판 13을 4-2로 제압했다.

후반이 결승포가 됐다. 1-1로 맞선 3회 디스커스의 구상봉이 투런포를 날리며 3-1을

만들었다. 판 13의 조현호도 6회 솔로포를 터트렸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무등산 생태요양병원과 허버 베이스볼의 대결은 1점차의 팽팽한 승부였다.

무등산 생태병원이 2회 2점을 먼저 만들어 냈지만 3·4회 각각 1점을 내주며 2-2, 5회 2점을 뽑으며 다시 리드를 잡은 무등산 생태병원은 7회 1점을 보태며 어렵게 1점차의 승리를 장식했다.

인왕리그의 페가수스는 ‘디펜딩 챔피언’ 청연항방병원을 상대로 0-7 완승을 거뒀다.

1회 2점을 뽑아낸 페가수스는 2회에 3점을 추가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기싸움에서 앞선 페가수스는 김상호를 앞세워 청연항방병원의 타선을 잠재우며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대한철강이 버스터스의 지각으로 행운의

무등기 리그별 결승 진출팀

- ◆천왕 리그 팔도참오리, 자연환경
- ◆호남 리그 화순에스레틱스, 버팔로스
- ◆지왕 리그 NH 디스커스, 무등산 생태요양병원
- ◆인왕 리그 페가수스, 대한철강

물수승을 거두며 대회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축제’ 무등기 야구대회는 오는 26일과 27일 무등경기장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26일 오전 10시 호남리그 우승팀이 가려지며 오후 1시에는 인왕리그 결승전이 치러진다. 27일에는 지왕리그(오전 10시)와 천왕리그(오후 1시)의 마지막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한편 천왕·지왕·인왕·호남리그로 나뉘

무등기 준결승전

◆지왕 리그
NH 디스커스 1020001-4 판13 1000010-2
△승리투수 : 조재현
△홀런 : 구상봉(3회2점·NH 디스커스) 조현호(6회1점·판 13)

무등산생태요양병원 0200201-5 허버베이스볼 0011011-4
△승리투수 : 김선도

◆인왕 리그
청연항방병원 0000000-0 페가수스 230200X-7
△승리투수 : 김상호

버스터스 0000000-0 대한철강 1111111-7(물수승)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48개 팀이 참가했으며 OB구장, 동성고, 무등중, 서석초 야구장 등지에서 우승을 향한 도전이 이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4위 두산 ‘가을의 전설’ 쓰나



플레이오프 4차전... 최준석 빼기포 LG 5대 1제압

‘디펜딩 챔프’ 삼성 상대 12년만의 KS 정상 도전

두산 베어스가 ‘가을잔치’의 새역사에 도전한다.

두산 베어스가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2013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최준석의 빼기포를 앞세워 5-1 승리를 거두며 플레이오프 ‘스톱’을 외쳤다.

이날 승리로 두산은 페넌트레이스 4위 팀 사상 첫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두산의 ‘경합’이 LG의 ‘패기’를 잠재웠다.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넥센을 상대로 13회 연장 승부까지 벌였던 두산은 경험으로 체력 열세를 만회하며 3승에 선착했다.

불안한 수비로 발목을 잡았던 LG가 이번에도 수비 실수로 두산의 기를 살려줬다.

두산 선발 유희관과 LG 선발 유규민이 1회를 삼자범퇴로 마무리하며 기싸움을 벌였지만 2회말 LG 1루수 김용의 실책이 나오

면서 두산이 선취점을 가져갔다.

두산 이원석과 오재원의 연속 안타로 만든 1사 1·2루. 임재철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투아웃이 됐지만 최재훈의 땅볼을 처리하던 1루수 김용의 공을 빠트렸다. 그 사이 2루 주자 이원석이 홈을 파고들면서 1-0이 됐다.

LG는 공격에서도 뼈아픈 번트 실책으로 자멸했다.

LG가 3회초 공격에서 선두타자 손주인의 안타로 추격 기회를 잡았지만 윤요섭의 번트 실책이 나오면서 선취점주자가 아꼈다. 볼넷 2개로 만든 4회 무사 1·2루에서는 ‘큰’ 이병규의 번트타구가 투수 앞으로 향하면서 3루로 뛰던 주자 이진영이 덕아웃으로 물러나야 했다. 6회 권용관과 이진영의 연속안타로 잡은 1사 1·2루의 기회도 살리지 못한 LG는 7회 겨우 득점에 성공했다. 1사에서

윤요섭이 좌전 안타로 출루했다. LG가 ‘슈퍼소닉’ 이대형을 대주자로 내보내며 승부수를 띄웠고 박용택의 2루타가 나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7회 말 LG가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헌납했다. 6회까지 4피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았던 LG 선발 유규민이 잇달아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며 1사 1·2루에서 강판됐다. 노련한 이상영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폭투에 이어 이종욱에게 희생플레이를 내주면서 역전 점수를 냈다.

팽팽하던 경기는 최준석의 빼기포와 함께 급격히 두산으로 기울었다. 2-1로 앞선 8회 최준환의 대타로 나온 최준석이 바뀐 투수 봉준근을 상대로 우측장타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환호했다.

두산의 홈런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진 타석에서 오재일이 잠실 중앙 펜스를 때리는 타구를 날렸다. 펜스를 맞고 튀어나온 공이 중견수 박용택의 몸에 맞으면서 우익수쪽으로 흘러갔고, 오재일이 홈까지 내달리면서 그라운드 홈런이 완성됐다. 2사에서는 오재일의 3루타에 이어 민병현의 적시타까지 더해졌다.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일정

한국시리즈 7전4선승제

- 1차전 24일(목)
- 2차전 25일(금)
- 3차전 27일(일)
- 4차전 28일(월)
- 5차전 29일(화)
- 6차전 31일(목)
- 7차전 11월 1일(금)

두산 BEARS vs 삼성 LIONS

7이닝을 6피안타 1실점으로 막은 유희관은 포스트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가 됐다.

앞서 5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던 두산은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은 역대 다섯 번째 팀이 됐다.

특심과 경험으로 LG와의 ‘덕아웃 시리즈’의 승자가 된 두산은 ‘디펜딩 챔피언’ 삼성을 상대로 12년 만의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을 노린다. 2001년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던 두산은 2008년에는 준우승에 머물며 아쉬움을 삼켰었다.

대망의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는 오는 24일 오후 6시 대구구장에서 막이 오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군산중이 지난 18일 KIA 타이거즈기 중학야구대회 우승을 확정짓고 이경태 감독을 행개라 치며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군산중, KIA 타이거즈기 중학 야구 우승

결승서 여수중에 2대 1승

군산중이 KIA 타이거즈기 중학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중이 지난 18일 함평 기아필리자스필드에서 열린 제7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여수중에 2-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팽팽한 투수전 양상의 경기는 7회 실책에서 승부가 갈렸다.

1-1로 맞선 7회말 1사 1·2루. 군산중 3번 타자 김길중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하면서 병살위기에 몰렸지만 여수중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결승점을 얻었다. 행운의 결승점과 함께 군산중은 지난 3회 대회에 이어 2번째 우승컵을 안게 됐다.

한편 지역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북지역 12개 중학교가 참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렸다. 우승팀 군산중에게는 우승기와 함께 우승 트로피, 기념메달,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여수중)과 3위 2개팀(무등중, 이평중)에게도 트로피와 기념메달, 야구용품이 돌아갔다. 참가팀에게는 야구용품이 기념품으로 주어졌다.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군산중 김병석에게 트로피와 글러브가 부상으로 수여되는 등 부문별 시상도 이뤄졌다.

◆개인상 수상자
▲최우수 선수상:김병석(군산중) ▲우수투수상:신재필(군산중) ▲최다홈런상:박창주(군산중·1개) ▲최다타점상:김유민(이평중·6타점) ▲감투상:박성현(여수중) ▲타격상:김용하(무등중·0.700) ▲최다안타상:김용하(무등중·7안타) ▲최다 도루상:김학성(여수중·2개) ▲수훈상:김영중(군산중) ▲미기상:윤선호(무등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